

지 명

| |
|---------|
| 차 례 |
| 1. 신례1리 |
| 2. 신례2리 |

1. 신례1리

① 갈남통

위치: 신례1리 1005번지 부근

유래와 현황: 우뚝한 돌 틈에 샘이 우물처럼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돌 우뚝할 갈(碯), 강이름 남(瀆), 둥근 구멍 통(樋)을 써서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② 갯쟁이밭

위치: 신례1리 생길악 앞

유래와 현황: 갯을 만드는 장인이 소유하던 밭인데서 연유하였다.

③ 강정도

위치: 신례1리 만지넛도 북쪽

유래와 현황: 전염병이 돌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싱지들래'에 환자

를 격리 수용하였는데 이들이 죽으면 바로 이 곳에서 관을 짜서 시체를 입관시킨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애초에는 '관정도'라고 불리었다.



<강정도>

④ 김서방물

위치: 신례1리

유래와 현황: '광산 金씨' 가문이 지금의 '하원터' 서쪽에 집성하여 살면서 이 냇물을 주로 이용한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김서방물>

⑤ 남천이이맹이

위치: 신례1리 마을 공동목장

유래와 현황: 이 들판의 지형지세가 '남천'이란 사람의 이마처럼 흰하게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맹이'는 '이마'의 제주어이다.

⑥ 닥낭병디

위치: 신례1리 들판

유래와 현황: 이 지역 일대에 닥나무가 숲을 이뤄 무성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닥낭'은 '닥나무', '병디'는 '병디' 등과 아울러 쓰이는 '들'의 제주어이다.

⑦ 마가미

위치: 신례1리 마을 공동목장 안

유래와 현황: 신례리에 있는 들판이름이다. 이 지역 안에 언덕이 있는데 지형지세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형태라고 하며 그 덕분에 지역주민이 활발한 생활상을 보인다고 전해진다.

⑧ 만지넛도

위치: 신례리 신례천 상류

유래와 현황: 이곳의 동북쪽에는 속칭 '제왓집' 선묘가 있다. 약 200여 년 전, 이 선묘의 장사날을 '피력'이라고 하여 만두를 후식으로 제공했는데 만두를 먹으면서 좌중에서 담소가 오고가기를 저 내천의 진입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했다. 마침 만두를 먹고 있던 터라 '만디넛도'라고 하자고 하니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그 이후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만지넛도'는 '만디넛도'의 변형이다. '만디'는 '만두', '넛도'는 '내의 진입로'의 제주어이다. 과거에 주민들의 음료로 사용하였다.



<만지넷도>

⑨ 문세운이터

위치: 신례1리

유래와 현황: 신례1리 설촌터의 하나이다. 문세운이란 사람이 맨 처음 이곳에 정착하여 살던 터인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⑩ 물동산

위치: 신례1리 중산간도로 내(川)

유래와 현황: 이 동산은 냇가와 이어진 지대로 제주토속잔디인 ‘태역’이 굽게 깔렸는데, 바로 밑에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는 봉천수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⑪ 물죽은밭

위치: 신례1리 위미리 경계 지점

유래와 현황: 물이 흘러내리다가 이 지점에 이르러 모습을 감추니 이에 연유한 이름이다.

⑫ 물세운이맹이

위치: 신례1리 환동산 서쪽 마을 공동목장

유래와 현황: 말을 메어두던 들판이름이다.

⑬ 방구산전

위치: 신례1리 물동산 남쪽 150m 지점 일대

유래와 현황: 이 지역은 깊숙이 들어간 들판의 냇가인데 화전농사를 짓던 밭떼기가 조금 있고 커다란 천연동굴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의 동굴은 높이가 약 7~8m이다. 구전에 의하면 신례초등학교 근처까지 무려 4백여m 가량 뻗었다고 한다. '산전'은 화전농사를 짓는 일대를 일컬으며 한라산 깊숙한 지대를 일컫기도 한다.

⑭ 비상지들래

위치: 신례1리 신례초등학교 동쪽 약 50m 지점

유래와 현황: 옛날에 호열자나 열병이 돌면 환자를 이곳에 초막을 지어 격리수용 하였다. 이곳에는 환자만을 수용하는 초막이 있고, 시신을 안치하는 초막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결국 비상시에 격리하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들래'는 격리하다의 제주어인 '돌르다'에서 파생한 말인데 스스로 격리된 경우는 '돌라지다', 타의에 의해 격리된 때는 '돌라불다' 등으로 쓰이며 또 발이나 들의 한 구역을 '들래', '도루', '드로' 등으로 일컫는다.

⑮ 빌레넷도

위치: 신례1리 서남쪽 도로

유래와 현황: 하천 바닥이 암반으로 깔려있는 내를 가로질러 나 있는 길인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⑯ 성산머루

위치: 신례1리

유래와 현황: 옛날 '예촌' 사람들이 한라산으로 가는데 첫 오름이 높게 보였으므로 불리워진 이름이다. '상산(上山)'은 높은 오름, 즉 한라산을 일컫는다. 이곳에는 마을의 포제를 지내던 제단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포제를 지내지 않는다고 한다.

⑰ 소낭동산

위치: 신례1리 웃동네 위미리 경계 지점

유래와 현황: 소나무가 있는 동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소낭'은 소나무의 제주어이다. 지금은 감귤원이 조성되었다.

⑱ 울리소

위치: 신례1리 신례천 상류 탕건동산 서북쪽 100m 지점

유래와 현황: 냇가에 있는 이 소(沼)는 깊고 물이 맑아 가뭄이 심하게 들어도 마르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식수며 생활용수로 이용하였다. 이곳에 야생오리들이 많이 서식한데서 '울리소'라 하였다. '울리'는 오리의 제주어이다.



<울리소>

⑲ 윤낭버들

위치: 신례1리 마을공동목장 안

유래와 현황: '윤노리나무'가 무성한 들판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윤낭'은 '윤노리나무', '버들'은 '비데기' 등과 아울러 밋밋한 평지의 들판을 일컫는 제주어로 지표면 바로 밑에 암반이 깔려 있어 울창한 숲이나 경작지는 조성하지 못하는 지역을 일컫는다. 지금은 윤노리나무가 거의 없다고 한다.

㉑ 조조기돌래

위치: 신례1리

유래와 현황: 신례1리 설촌터의 하나이다. 조(趙)조기는 이 마을에 성씨, 문(文)씨와 아울러 최초로 정착한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살았던 터를 일컫는 이름이다.

㉒ 지냉이믄루/ 두맹이믄루

위치: 신례1리

유래와 현황: 이 언덕배기의 지형지세가 마치 지네처럼 생긴데서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지냉이'는 '주냉이'와 아울러 지네를 일컫는 제주어이다.

㉓ 칼드리도

위치: 신례1리 입구 하례리 경계

유래와 현황: 이 마을로 진입하는 길목인데 날카로운 바위가 마치 칼처럼 길목에 가로놓여 있어 길 폭이 좁은 데다 사람이 건너다니기에 험하다 하여 연유한 이름이다.

㉔ 탕건동산/탕건선돌(宕巾立石)

위치: 신례1리 신례천 상류 만지넷도 공동모지 쪽 50m 지점

유래와 현황: 이 동산 가운데 탕건모양을 한 큰 선돌이 있어 연유한 이름이다. 옛날 이 지역 주민들이 산으로 갈 때는 이 동산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또 내려올 때도 이곳에서 쉬면서 정담을 나누고 또 상여를 운구할 때도 여기에 이르러 상여꾼이 교대를 했다. 지금 이 동산은 고운 잔디밭이 감귤원으로 바뀌었고 탕건모양의 선돌도 감귤원의 방풍림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 옛 자취는 찾아볼 수 없다.

㉔ 헤드리왓

위치: 신례1리 중앙동

유래와 현황: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㉕ 환동산

위치: 신례1리 마을공동목장 입구 동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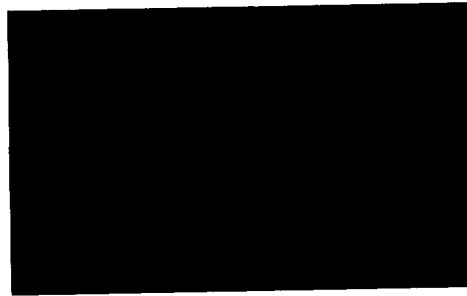
유래와 현황: 동산이 하얗게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신례2리

① 개말

위치: 신례2리 서쪽 바닷가

유래: 신례2리 포구 일대 혹은 포구의 입구의 옛 이름이다.



<개말>

② 거린내깎

위치: 신례2리 서쪽 건천의 꼬트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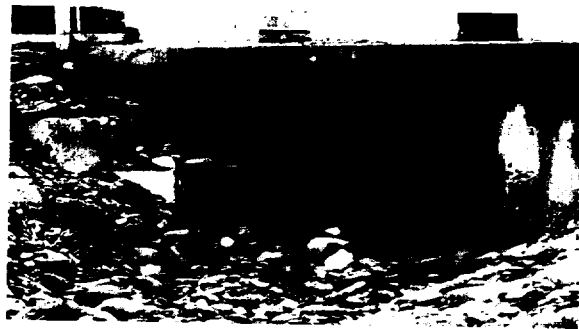
유래와 현황: 신례2리의 '세기네물'이 '밥줄기빌레' 중간 지점을 통과하

여 바다로 흘러가는 물길이 움푹 팬 곳으로, 이 건천이 두 가닥으로 나누어 졌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③ 골창물

위치: 신례2리 94번지로부터 바다까지

유래와 현황: 여름철 비가 내리면 '물난밭'에서 솟아 나오는 물이 리사무소 앞으로 개울을 이루며 바다로 흘러내리는데 이 개울을 일컫는 이름이다. 평소에는 건천이다.



<골창물>

④ 공천미(貢泉味)/ 공새미/ 공천포

위치: 신례2리

유래와 현황: 신례2리의 다른 이름이다. 이 마을은 물이 흐르는 내(川)가 있는가 하면 바닷가에도 많은 샘이 있고 또 샘마다 수질이 좋기로 제주섬 제일이라고 할만치 이름이 드높아, 서기 1211년 지금의 신례1리를 중심으로 현청과 관청이 들어서면서 식수는 물론이고 마을 제사 때에 청정제수로 '맛이 좋은 샘물을 바친다.'하여 '공샘이'라고도 하고 '공천미'라고도 한데서 연유하였다. '공새미'는 '공샘이'의 변형이다. 이 마을의 바닷가는 검은 모래밭을 이루고 있고 포구도 유명하여 '공천포'라고도 불리는데 현재는 이 지명이 널리 사용된다.

⑤ 구분지미

위치: 신례2리 즈진여 남쪽 500여m 지점 바다 속
유래와 현황: 바다 속에 300여 평 가량 되는 넓은 암반이 깔려 있는데 이 암반이 튀어 나와 주변의 다른 여와 구별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⑥ 내깍

위치: 신례2리 세기내 하류
유래와 현황: '세기내'가 바다와 만나는 지점 즉, 내(川)의 꼬트머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세기내' 다리 설치 이전에는 홍수가 나서 일주도로를 건너지 못하면 이곳을 이용해서 건넜다고 한다. 이에 얽힌 속담이 있다.

- 속담: 1) 내깍 절(파도)이 올면 동남풍이 불고 비가 온다.
2) 내깍 동편 절(파도)이 와썹거리면 새파람이 분다.

⑦ 너븐돌

위치: 신례2리와 위미1리 경계 바닷가
유래와 현황: 이 지역 일대의 바닷가가 넓고 평평한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⑧ 두멍이모들/ 주녕이모들

위치: 신례2리 원담과 할매개 사이
유래와 현황: 울퉁불퉁한 암반과 큰 바위들이 듽성듬성 널려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모들'은 '머들'과 아울러 돌무더기를 일컫는 제주어이다.

⑨ 터럭발

위치: 신례2리 밥주리빌레 5m 앞 바다 속
유래와 현황: 닭털을 닮은 김의털이라는 해조류가 많이 서식하는 잠수 어장인데서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과, 바다 속으로 뻗어 내린 암반의 표

면이 닭털처럼 보풀보풀하게 곁을 이룬 데서 연유했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⑩ 매아진들

위치: 신례2리 166-175번지 일대

유래와 현황: 넓은 들판 위 하늘에 떠서 사냥을 하던 매들이 자주 앉아 쉬는 바위가 있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⑪ 명살

위치: 신례2리 세기내 하류 삼각주

유래와 현황: 남북 200m, 동서 30여m, 약 3,700여 평에 이르는 삼각주로, 이 지역은 '세기내'가 흐르면서 운반한 퇴적토가 쌓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남쪽 2,000여 평은 개인소유이고 북쪽 1,700여 평은 국유지로 옛날에는 이곳에 2개의 연자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⑫ 모실왓

위치: 신례2리 94번지

유래와 현황: 물이 나오는 발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여름철만 되면 물이 계속해서 나와 3,000여 평에 이르는 발 전체가 물바다를 이루었다. 지금은 롯데공장 부지의 일부이다.

⑬ 발받는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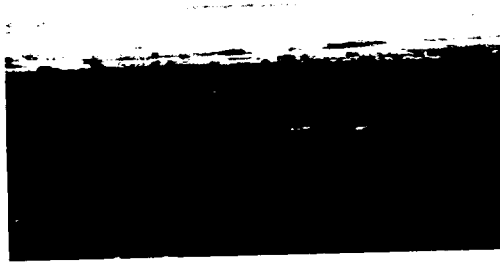
위치: 신례2리 밥주리빌레 동쪽 바다 속

유래와 현황: 이곳 바다 속에 100여 평되는 암반으로 이뤄진 여가 있는데 그 형태가 마치 발을 짚은 모양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⑭ 밥주리빌레

위치: 신례2리 서남쪽 200-300m 일대

유래와 현황: 마을의 주택가 서남쪽 200-300m 가량 되는 넓고 평평한 암반지대가 바다를 향해 뻗어 있는데 참새가 떼를 지어 자주 몰려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밥주리'는 참새를 일컫는 방언이나 제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잠자리를 '밥주리', 참새를 '밥주리춤생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밥주리벌레>

⑮ 북돌

위치: 신례2리와 하례리의 바닷가 경계 기준점

유래와 현황: 마을의 서쪽 냇가 아래쪽이 바닷가인데 그 중간 지점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둥그런 북처럼 보여 이에 연유한 이름이다.

⑯ 산이물

위치: 신례2리 명살 중간 지점 하천 서쪽 샘

유래와 현황: '세기내'의 명살 중간 지점의 서쪽 언덕 바위 밑에서 솟아나는 샘으로 물이 깨끗하고 워낙 차가와 식수며 생활용수로 이용하였고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물맛이 차갑고 시리니, 살아있는 물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름이 되면 피서하려는 인근 주민들로 붐빈다. 예전에는 장어와 은어가 많이 서식하였으나 지금 장어는 멸종상태이며 은어도 희귀해 보기 힘들 정도라 한다.

⑰ 새우여

위치: 신례2리 설코지 끝 동쪽 100m지점

유래와 현황: 여의 지형지세가 마치 새우와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⑱ 설코지

위치: 신례2리 동쪽 바닷가

유래와 현황: 바닷가의 암반지대가 열기설기 얽히면서 바다로 뺀어 곳(串)을 이룬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설'은 바닷가 암반지대를 이루는 '성창', 혹은 바위나 돌무지가 열기설기 얽혀있는 지대를 일컫는 '설덕'을 의미하고 '코지'는 곳의 제주어이다.

⑲ 세기내

위치: 신례리와 하례리의 경계를 이루는 건천(乾川)

유래와 현황: 이 냇가의 일대에 소귀나무가 울창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세기'는 '속낭', '소귀낭', '쉐귀낭'과 아울러 소귀나무를 일컫는 제주어이다.

㉑ 소랑모살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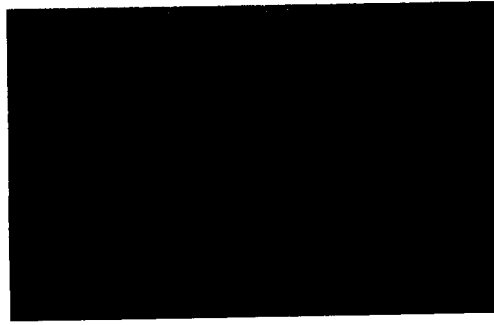
위치: 신례2리 구분지미 서쪽 바다 속

유래와 현황: 바다 속에 약 150여 평 가량되는 암반이 비스듬하게 깔려 있고 위에는 모래가 덮여있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소랑'은 '비스듬한 상태', '모살'은 '모래', '빌레'는 '암반'의 제주어이다.

㉒ 앞빌레

위치: 신례2리 마을 앞바닷가에 50m 지점까지

유래와 현황: 마을 앞 바닷가에 폭 10-30m의 넓이로 뺀 암반층 세 곳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다. 썰물 때만 드러나는 갯가로 예전에는 어선들을 선착하는 자연포구로 이용되었다.



<앞빌레>

㉔ 영등물

위치: 신례2리 마을 중심의 동쪽 바닷가

유래와 현황: 이 바닷가에 생수가 용출하는 샘이 있어 바다로 물이 흐른다. 이곳을 통하여 음력 정월이면 바람을 관장하는 '영등할망'이 들어왔다가 2월 보름에 나간다는 전설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영등물>

㉕ 우똥믄루

위치: 신례2리 395의 1-374번지 일대

유래와 현황: 신례1리와 경계를 이루는 남쪽의 등성이가 이 마을의 위쪽에 해당하는데 지역이 높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똥믄루'는 위가 떠 있는 언덕이라는 뜻의 제주어이다.

㉘ 원담

위치: 신례2리 뱃밭레와 두맹이모들 사이

유래와 현황: 원시어로의 한 형태로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포획할 목적으로 둥그렇게 돌담을 쌓아 놓은 어장을 일컫는 이름이다. 예전에 이 원담을 이용하여 멸치를 주로 잡았다.



<원담>

㉙ 종남골

위치: 신례2리 560-577번지 일대

유래와 현황: 이 마을과 위미리를 동서로 경계 지우는 하천이 있는데 이 냇가에 '때죽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서 연유한 이름이라는 설과, 농경지 소유를 구분 짓는 나무막대기인 '종'을 꽂아 표시한 데서 연유했다는 설이 있다. '종남'은 '종남'과 아울러 '때죽나무'를 일컫는 제주어이다.

㉚ 지서마루/지석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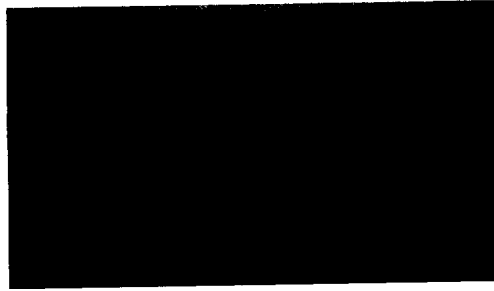
위치: 신례2리 131의 4-151번지 일대

유래와 현황: 이 지역 일대에 널찍한 돌인 고인돌, 즉 지석묘가 있는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지서마루'는 '지석묘 마루'의 음이 축약, 변형된 것이다.

㉞ **즈진여**

위치: 신례2리 영등물에서 남쪽 구분지미 동쪽 바다

유래와 현황: 바다에 암초 10여개가 밀집되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줏다/즈지다'는 '밀집하다'의 제주방언이다.



<즈진여>

㉟ **톨매기**

위치: 신례2리 영등물 남쪽 구분지미 동쪽 바다

유래와 현황: 바다 속에 작은 바위들이 여처럼 여러개 돌출되어 있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톨매기'는 논이나 밭 혹은 어느 한 지역의 작은 구역을 일컫는 뚝기의 제주어이다.

㊱ **파랑난동산**

위치: 신례2리 125번지 일대

유래와 현황: '너븐돌' 지경 북쪽의 '중남골'을 중심으로 한 이 지대가 비교적 높아 동산을 이룬 데다 나무가 울창하여 늘 파랗게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㊲ **할매개**

위치: 신례2리 두맹이모들과 설코지 사이

유래와 현황: 조그맣게 바닷가가 육지로 후비져 들어가 자연포구를 이룬 곳의 이름이다.

㉔ 항애골/ 황학동

위치: 신례2리 343의 3-352번지 일대

유래와 현황: 마을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이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낮은 지대로 지형지세가 마치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을 닮았다는데서 '학의 알 고을'이라 했는데 변형되어 '항애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㉕ 흙밭

위치: 신례2리 130-202번지 일대

유래와 현황: '물난밭' 서북쪽에서 '항애골'에 이르는 이 일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형이 낮는데 여기가 농경지가 조성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 조사자 : 양원혁(04), 강동석(05), 안군(05), 이현정(05)